

# 국립 중앙 박물관 답사 보고서

- 권력, 사상, 생활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 -

영어영문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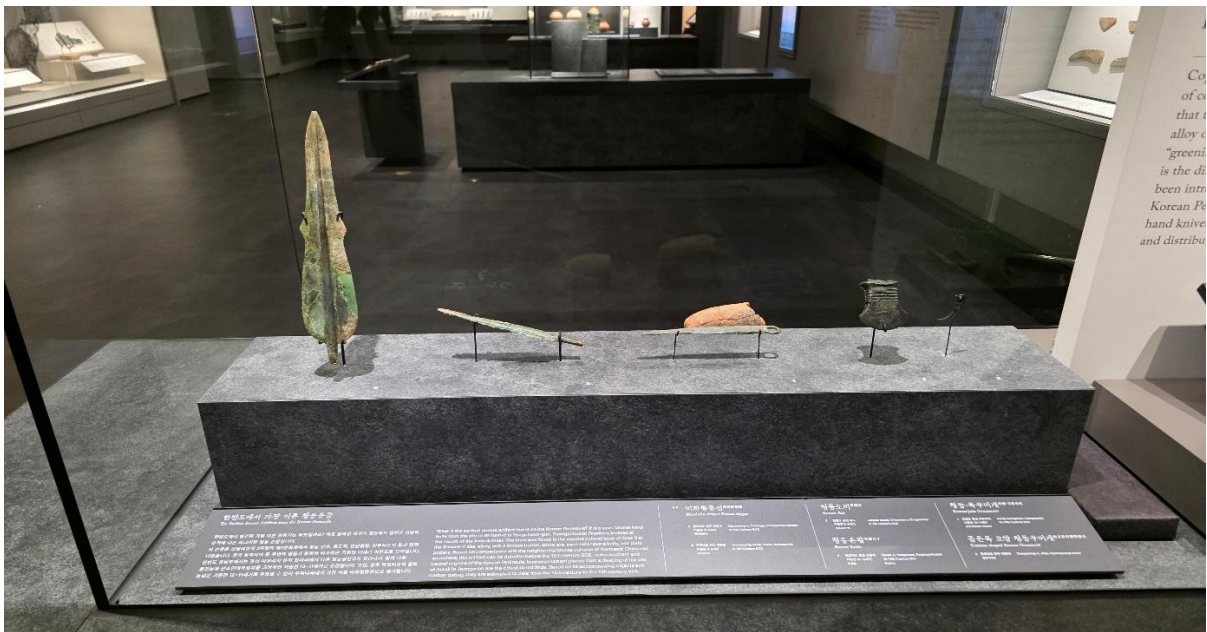
20250080 이준민

## 1. 서론

한국역사의 이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유물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다. 박물관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물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었고,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고, 권력을 표현했으며, 어떤 사상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답사에서는 특히 청동기 시대의 권력 형성, 삼국시대의 왕권과 사상, 고려의 불교문화와 생활문화,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와 백자문화를 중심으로 유물을 살펴보았다. 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2. 청동기와 고조선: 권력의 시작



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청동유물 전시였다. 청동기는 돌이나 흙으로 만든 도구와 달리 제작에 높은 기술이 필요했고,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청동기를 소유했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도구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특별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전시된 청동 유물 중에는 청동 단추, 도끼, 민무늬토기 등 여러 유물이 함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청동기 문화가 단순히 무기만의 문화가 아니라 생활과 의례, 권력의 상징이 함께 나타난 문화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동기가 지배층의 무덤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점은 당시 사회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이 생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전시에서는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청동기가 바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문에는 삼한 지역에서 철기가 널리 쓰였지만, 세형동검과 같은 상징적 청동 무기는 계속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시대가 완전히 단절되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의 문화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일정 부분 이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청동기는 실용적인 도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권위와 지배력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 따라서 청동기 유물은 한반도 고대 사회에서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했다.

### 3. 삼국시대: 왕권과 사상의 발달



삼국시대 유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백제금동대향로 모형이었다. 향로의 윗부분에는 봉황이 있고, 몸체에는 산과 인물, 동물들이 매우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단순한 공예품이라기보다 백제 사람들이 상상한 이상세계와 종교적 세계관이 담긴 유물처럼 보였다.

백제금동대향로는 백제의 뛰어난 금속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동시에, 불교와 도교적 사상이 함께 반영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물을 보면서 백제 문화의 세련됨을 실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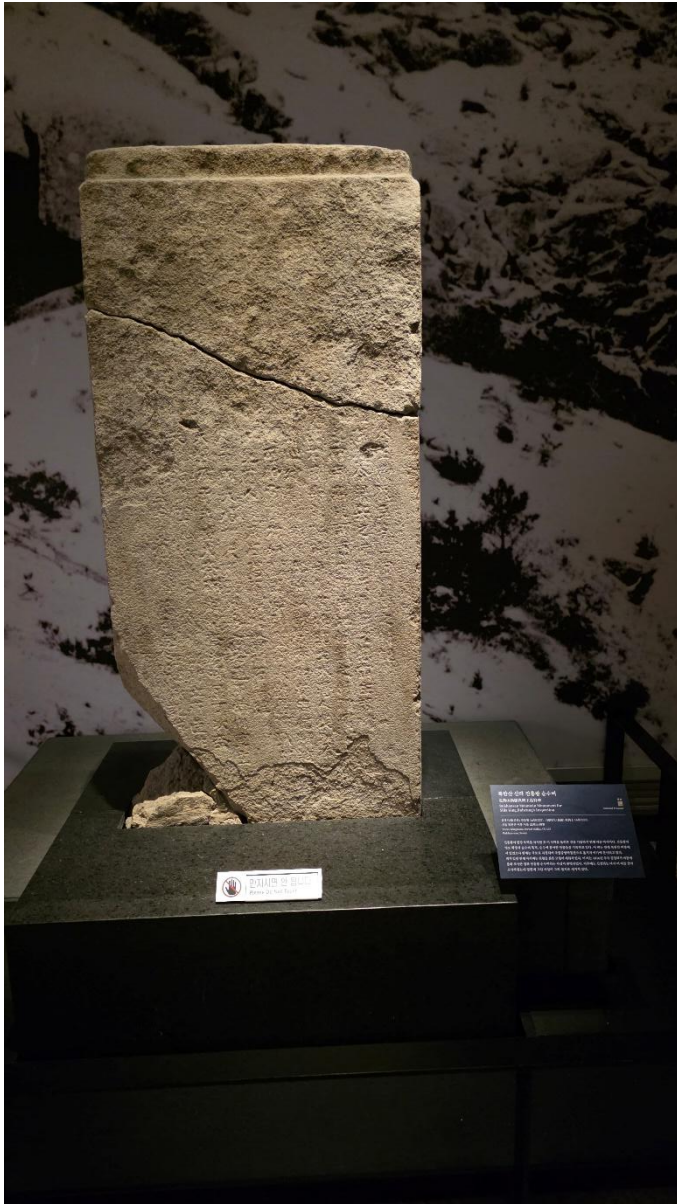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억에 남았던 유물은 '호우명 그릇'이다. 이 그릇은 신라 수도였던 경주의 무덤에서 출토되었지만, 바닥에는 광개토대왕을 기념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설명문에서는 이 그릇이 5~6세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무덤 켜묻거리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 유물을 보면서 삼국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외교적으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하나의 그릇을 통해 확인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역사책에서는 삼국의 대립과 전쟁이 강조되지만, 실제 유물을 통해 보면 교류와 관계도 함께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금관은 삼국시대 왕권을 가장 화려하게 보여주는 유물이었다. 금관에는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세워져 있고, 금으로 만든 장식들이 달려 있어 매우 화려했다. 설명문에서는 금관의 나뭇가지 도안이 통치자이자 국가 제의를 주관하는 최고 지배자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신라의 금관은 단순한 장신구라기보다 왕의 권위와 신성함을 드러내는 상징물이라고 생각했다.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검이나 청동 방울이 권력을 보여주었다면, 삼국시대에 들어서는 금관처럼 더 화려하고 시각적인 방식으로 지배층의 권위를 표현하게 된 것이다.



신라의 성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유물은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였다. 이 비석은 진흥왕이 새로 차지한 지역을 둘러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라고 한다. 비석 자체는 많이 닳아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설명문을 통해 신라가 한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히고 이를 기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금관이 왕권의 상징을 보여준다면, 진흥왕 순수비는 신라 왕권이 실제로 영토 확장과 국가 발전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신라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유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4. 고려: 불교문화와 생활문화



고려 전시실에서는 왕실이나 귀족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청동 그릇과 수저류가 눈에 들어왔다. 전시 설명에는 고려의 귀족들이 술자리와 식생활을 즐겼고, 숟가락과 젓가락의 형태에도 당시 생활문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고려 사회를 단순히 불교나 왕조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던 모습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특히 금속으로 만든 그릇과 숟가락은 당시의 생활 수준과 공예 기술을 보여준다. 유물 하나하나가 화려한 왕권의 상징은 아니지만, 고려 사람들의 일상과 식생활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봉업사총불상” 글자를 새긴 청동 향로**  
 봉업사경 불향로  
 청동(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 안성에 있던 고려시대 사찰 봉업사(奉業寺)에서 만든 청동 향로이다. 향로에 “봉업사경불상대사(奉業寺敬佛大舍)” 이라는 글자를 정으로 새겨 새겼고, 받침 위에는 “봉업사(奉業寺)가 후세가 후 200년이라는 뜻이다. 봉업사는 고려의 건국을 기념하여 창건한 사찰로서, 고려 태조가 왕건(王建)이 임종(臨終)의 초상(肖像)을 모시고 계신 불상에서 계시를 깨닫던 장소 사용이었다. 이 향로는 봉업사가 말한 원형의 양식(樣式)을 모시고 계신 불상에서 계시를 깨닫던 장소 사용이었다. 수평을 받은 모습이다. 수평 장식은 불꽃이 떠오르는 보주(寶珠) 모양으로 금으로 도금했던 조각이 남아있다. 수평 위에는 수평을 틀어 양 조각이 고려(高麗)로 유래했다. 봉업사의 약칭(略稱) [가랑(加浪)]에서 고려시대의 하인간(下人) 간은 향로(香爐)로 변형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면서도 조형미와 균형미가 탁월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Bronze Incense Burner with  
 Inscription of “Bongyeop-sa  
 Temple”  
 Goryeo Dynasty, 14<sup>th</sup>-15<sup>th</sup> Century  
 Height of One Kubit is 20.1 [Inches]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로는 불교를 빼놓을 수 없다. 전시된 청동 향로는 '봉업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유물로, 불교 의례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로의 형태가 크고 안정적이며, 위쪽 장식이 인상적이었다.

고려는 불교가 국가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준 시대였다. 불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았고, 사찰은 종교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다. 이 향로는 고려 사회에서 불교 의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의 종 역시 불교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전시된 종은 크기와 장식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표면에는 글자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종은 사찰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의례를 진행할 때 사용되었을 것이다. 단순히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니라, 종교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향로와 종을 함께 보면서 고려의 불교문화가 단순히 사상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의례 도구와 공예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유물들은 고려의 금속공예 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 5. 조선: 성리학적 질서와 백자의 미



조선시대 유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달항아리였다. 달항아리는 화려한 무늬가 거의 없고 색도 단순하지만, 둥근 형태와 흰색의 느낌이 매우 편안하고 담백하게 느껴졌다. 설명문에는 조선의 대표적인 백자 항아리로, 둥근 달을 연상시킨다고 되어 있었다.

고려청자가 세련되고 화려한 귀족적미를 보여준다면, 조선 백자는 절제되고 검소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고, 검소함과 예,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 달항아리의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은 이러한 조선 사회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조선 사회에서 성리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생활 질서와 의례를 지배하는 기준이었다. 조선시대 제기 전시에서는 제사에 사용된 여러 백자 그릇을 볼 수 있었다. 설명문에는 조선시대 제사상이 가문과 신분에 따라 구성되었고, 제기 역시 일정한 규범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선 사회에서는 조상을 모시는 제사가 매우 중요한 의례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사는 가족과 가문의 질서를 확인하는 행사였고, 성리학적 가치관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음을 보여준다. 백자 제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예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 6. 결론

국립중앙박물관 답사를 통해 한국사의 흐름을 실제 유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청동기 유물은 고대 사회에서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고, 삼국시대의 백제금동대향로, 호우명 그릇, 신라 금관, 진흥왕 순수비는 각 나라의 사상, 외교 관계, 왕권 강화를 보여주었다. 고려의 청동 향로와 종은 불교문화의 발달을 보여주었고, 조선의 달항아리와 제기는 성리학적 질서와 절제된 미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유물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 권력과 사회 질서를 담고 있는 역사 자료라는 점을 느꼈다. 실제 유물을 직접 보고 설명을 읽으니 시대별 특징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청동기와 금관을 통해 고대 사회의 권력 표현 방식을 볼 수 있었고, 조선의 제기와 백자를 통해서는 성리학적 질서와 검소한 미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보며 시대마다 유물이 담고 있는 의미가 다르지만, 모두 그 시대 사회를 이해하게 해 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느꼈다.

짧은 답사였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유물들은 한국사의 여러 장면을 실제로 확인하게 해주었다. 이번 답사는 수업에서 배운 한국사의 흐름을 실제 유물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각 시대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